

<가성소다>

선경 장사속에 한양화학 맞대응, 「반덤핑」 제소도 고려

92년 국내 가성소다 생산량은 49만6400톤으로 91년대비 27.3% 증가했으며, 수요는 91년 48만1400톤 대비 9.3% 증가한 52만6400톤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가성소다 생산량이 27%를 상회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91년 한양화학이 기존의 여천공장(생산능력 33만6000톤)외에 울산단지내 13만5000톤 규모의 공장을 가동했으며, 한국오츠카가 Hyd-ragine Hydrate 공장 가동에 앞서 2만톤 을 생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백광산업이 지난 90년 7월 1만5700톤의 공장을 군산지역에 추가건설, 서울공장 및 군산공장이 각각 3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 지난해 83% 정도의 가동률로 4만9600톤을 생산했고 동양화학이 가성소다만을 합성하는 설비를 갖춰 92년 2만4100톤을 생산, 83.1%의 가동률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동진화성이 연산 2만4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 지난해 말경 시운전을 실시해 400톤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성소다 수입은 지난 87년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 90년 9만9000톤이 수입돼 공급의 22.2% 비중을 차지했으며, 91년에는 9만3100톤이 수입돼 90년 대비 2.4% 증가해 공급량 48만3000톤 가운데 19.3%를 보였으나 90년대비 2.9%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92년에는 91년대비 54.2% 감소한 4만2600톤으로 총 공급량 53만9000톤 가운데 7.9%의 비중을 보여, 91년까지의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가성소다 수급현황 (단위 : 1000톤, %, 100% 환산)											
구 분	생산능력	구성비	1990			1991			1992		
			생 산	판 매	자가소비	생 산	판 매	자가소비	생 산	판 매	자가소비
한 양 화 학	366.0	75.0	255.6	264.2	1.9	299.6	292.6	12.7	389.6	376.0	3.1
동 양 화 학	29.0	5.9	1.5	-	1.4	10.6	5.6	0.7	24.1	10.6	12.8
백 광 산 업	56.0	11.5	41.1	34.2	6.9	45.8	39.0	0.1	49.6	41.7	7.0
조 흥 화 학	5.0	1.0	4.4	4.1	0.4	4.6	4.1	-	4.4	4.0	0.4
금 양	-	-	4.2	2.8	1.4	3.4	2.1	-	-	-	-
대 림 화 학	6.0	1.2	6.0	4.1	1.9	6.2	4.5	-	5.2	3.5	1.7
한국오츠카	20.0	4.1	1.9	1.0	0.7	14.7	8.0	0.1	18.7	7.6	11.1
국 도 화 학	6.0	1.3	3.7	2.7	0.9	4.5	3.1	0.1	4.4	3.6	0.9
동 진 화 성	-	-	-	-	-	-	-	-	0.4	-	0.4
합 계	488.0	100.0	318.4	313.1	15.5	389.3	359.1	13.8	496.4	447.0	37.4

주) 생산능력은 1992년 기준

그러나 올해 들어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5월 현재 5만8700톤이 수입돼 92년 1~5월대비 126.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업별로는 선경이 중국으로부터 2만9000여톤을 수입했으며, 남덕물산이 4000여톤, 한양화학을 비롯한 기타 기업이 2만5700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중에는 2만여톤이 수입돼 수요의 34.1% 비중을 보였으며, 92년 5월대비 408.6%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80만달러로 121.0% 증가했다.

93년(1~5월) 현재 수입량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만2300여톤으로 5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1만2400여톤으로 21.1%, 일본이 9900여톤으로 16.9%, 미국이 4000여톤으로 6.8%의

비중을 보였다. 사우디·일본은 각각 39.2%, 38.0% 줄었다.
또 유럽 및 독일에서의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성소다공장 위치 및 PROCESS						(단위 : 1000톤)
회 사 명	공장위치	설치년도	생산능력	제 법	기술선	비 고
한양화학	여천	1980	231	격막법	DOW(미국)	일부교체
		1987	60	이온교환막법	AGC(일본)	M·POLAR
	울산	1991	134	이온교환막법	AGC(일본)	M·POLAR
백광산업	서울	1954	15.0	수은법/격막법	DIAMOND(미국)	가동중지 (1989)
		1989	12.2	이온교환막법	UHDE(독일)	BIPOLAR
	군산	1990	12.0	이온교환막법	UHDE(독일)	BIPOLAR
		1992	15.0	이온교환막법	UHDE(독일)	증설
동양화학	군산	1990	29.0	이온교환막법	UHDE(독일)	BIPOLAR
조흥화학	서울	1964	5.0	격막법	국내제작	-
금 양	부산	1977	4.5	격막법	일본소다	1991년 중단
대림화학	진주	1977	6.0	격막법	국내제작	1992.12 중단
국도화학	서울	1981	6.0	이온교환막법	도꾸야마소다(일본)	-
한국오츠카	온산	1990	20.0	이온교환막법	CEC(일본)	BIPOLAR
동진화성	반월	1992	8.0	이온교환막법	ICI(미국)	M·POLAR
한국비료	울산	1994 (예정)	50.0	이온교환막법	ACI(일본)	건설중 BIPOLAR

주) 생산능력은 1992년 기준

가성소다 수요현황(용도별)					(단위 : 1000톤, %, ▼는 감소)			
구 분		1990		1991		1992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수 량	구성비	증감률
섬	유	79.8	8.3	97.8	22.6	103.3	19.7	5.6
화	섬	25.3	▽10.6	23.3	▽7.9	25.7	4.9	10.3
비누·세제		36.1	7.8	32.1	▽11.1	28.8	5.5	▽10.3
제지·셀로판		21.5	▽1.8	24.2	12.6	28.6	5.4	18.7
식 품		48.1	31.8	54.9	14.1	59.3	11.3	8.0
무 기 화 학		100.2	4.2	121.2	21.0	154.4	29.4	27.4
유 기 화 학		36.3	24.3	36.2	▽0.3	37.7	7.2	4.1
금속·요업		18.0	41.7	19.4	7.8	24.4	4.6	25.8
석 유 화 학		25.0	-	39.0	56.0	18.8	3.6	▽51.8
수 처 리		12.7	47.7	14.2	11.8	25.9	4.9	82.4
전 기·전자		7.2	53.2	8.7	20.8	7.7	1.5	▽11.5
기 타		7.5	▽67.4	9.1	21.3	10.7	2.0	17.6
합 계		417.7	13.4	480.1	14.9	525.3	100.0	9.4

을 국내 생산기업의 제조원가에도 못미치는 덤핑가격으로 시장에 대량 유통시켜 가격을 악화시킨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국내 가성소다 생산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생산기반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 종합상사들이 해외 수출국(중국 및 선진국)의 자국내 과잉물량 처리를 위해 변동비 수준으로 수출하는 가성소다를 수입해 덤핑으로 판매, 국내 전체 시장을 악화시키며 한시적으로 시세차익 획득을 위해 국내 산업발전을 도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내 가성소다 생산기업은 총원가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변동비 수준의 수입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주장, 가성소다 국제가격은 전해산업 특성상 주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금액 기준으로 93년(1~5월) 현재 92년대 비 중국이 95.4%, 미국이 1055.0%의 증가했으나 사우디 및 일본은 49.8%, 5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들어 가성소다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가성소다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가성소다 시장을 장악해 온 한양화학 등 생산기업들과 중국산을 수입하는 선경 및 미국산을 수입하는 남덕물산 등 수입기업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한양화학은 93년 들어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선경 및 남덕물산에서 수입품

변동이 심한 반면, 국내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적 공장가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 종합상사들의 책임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선경은 국내의 염소 및 그 유도체산업이 성숙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발전 정도가 낮고 가성소다 수요신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건하에서 수급상 부족한 가성소다를 해외 생산자와 Co-Producer base로 장기계약 수입, 안정된 가격으로 수요자들에게 공급,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선경은 전체 산업의 기초원료로 사용되는 CA공업의 대표적 품목인 가성소다 및 소다회는 유리·섬유·화학·비누공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가성소다는 92년 약 10만톤 규모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공급부족 품목으로 관련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이며 값싼 공급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성소다시장은 주 공급선인 한양화학의 독과점으로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지역 가운데 다른 나라에 비해 수입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싸게 수입·공급돼 관련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양화학에서 지적하는 안정공급에 대해서 선경측은 중국 上海의 Scat와 5년간 독점·장기계약을 체결, 국내 판매를 개시했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가성소다 수입 배경이 국내의 구조적인 염소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성소다 생산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0만~17만톤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또 국내 독점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유도해 제품의 정상가격 실현에 따른 국내 실수요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천일염 수입실적 (단위 : 1000톤, 1000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A u s	803	23,540	927	26,306	1,079	31,035
멕 시 코	149	4,303	245	6,756	309	8,717
기 타	-	-	4	587	1	25
합 계	952	27,843	1,178	33,649	1,389	39,777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공급선으로 중국 上海에 위치한 Scat를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항해 일수가 2~3일로 비상사태에도 선경이 비축한 재고와 Scat의 Delivery로 안정공급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중국내 최대 규모 공장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펙과 동일하

며, 국제가격의 급격한 상승시에도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경쟁력있는 가격 및 물량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양화학은 국내 가성소다 부족물량을 수입상사에 의존하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공장가동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86~87년 사이 약 1년간 국제 및 국내가격 구조아래에서 국내 수입상사들이 수입·판매하다 국제가격의 반등으로 철수해버린 과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가성소다 시장현황을 보면, 92년 기준 한양화학이 생산량 91만9100톤 중 3100톤을 제외한 37만 6000톤을 판매해 84.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91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국내 CA시장에서의 한양화학의 입김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백광산업은 4만9600톤을 생산해 7000톤은 자가소비했으며, 4만1700톤을 판매해 9.3%의 점유율을 보였고 동양화학은 1만600톤으로 2.4%, 한국오츠카는 7600톤으로 1.7%를 나타내고 있다.

또 조흥화학이 4400톤을 생산해 400톤은 자가소비, 4000톤은 판매했고 국도화학 및 대림화학 등이 각각 3600톤, 3500톤을 판매했으나 시장점유율 부문에서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양화학이 84%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여 가성소다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양화학의 가격제시 등 전략이 수급 및 시장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성소다는 섬유·무기화학·수처리·비누·세제 등 용도가 다양한데 지난해는 수처리·무기화학·금속·요업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석유화학·전기/전자·비누/세제부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수요현황을 보면 무기화학부문이 2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분야가 19.7%를 보여 무기화학 및 섬유분야가 소다 공급량 가운데 50%에 가까운 26만여톤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지산업의 신·증설로 제지/셀로판분야가 2만8600톤의 가성소다를 소비, 91년 2만4200톤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수처리분야는 거의 100%에 가까운 신장률을 보였는데 92년에 2만5900톤으로 82.4%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키 위해 신·증설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누/세제,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의 부문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부문의 경기부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Flake 수요현황			(단위 : 1000톤)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생 산	40.7	41.5	46.0	51.6	64.5
수 입	1.3	1.4	0.9	1.1	0.4
합 계	42.0	42.9	46.9	52.7	64.9

특히, 석유화학용 수요는 지난 91년 3만9000톤으로 90년 2만5000톤 대비 56.0% 증가했는데 이는 91년 석유화학공장의 신·증설에 따라 산성가스 중화제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92년에는 신장세를 이끌만한 호재가 없어 수요량 1만8800톤으로 91

년대비 51.8%감소했다.

또 전기/전자용 수요는 90년 53.2%, 91년 20.8%의 증가했으나 92년에는 전기/전자산업의 불경기에 따른 가성소다 수요량 감소로 7700톤이 소비돼 91년 8700톤 대비 11.5% 감소했다.

금속 및 요업용 수요는 90년 1만8000톤으로 41.7%의 증가했으며, 91년에는 7.8% 증가에 그친 1만 9400톤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금속 및 요업산업의 경기활성화로 2만4400톤으로 25.8% 성장했다.

이에따라 92년 가성소다 수요는 52만6400톤으로 91년 48만1400톤 대비 9.3% 증가했는데, 이는 91년 14.3%의 증가율보다 5.0%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93년 수요는 92년 대비 10.0% 증가한 57만9000여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94년 상반기에 한국비료가 연산 5만톤 규모의 가성소다 공장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한양화학의 연산 6만톤 증설이 완료되면 공급은 56만3800여톤에 달하나 수요는 64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공급부족이 다시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가성소다 생산량 및 증설계획은 염소 수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고체 가성소다

국내 가성소다 가격은 국제가격에 맞춰 변동되고 있으나, 국내 가성소다 및 염소의 수급불균형으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87~88년 세계적으로 가성소다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NaOH 국제 평균가격이 US스파트 FOB기준 톤당 각각 167달러, 377달러였던 것에 비해, 국내가격은 87년 6월 이후 적용가격이 톤당 25만9300원, 88년 3월이후 고시가격이 25만5300원으로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됐었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세계적으로 가성소다 공급부족, 염소 공급과잉으로 가성소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한양화학은 염소과잉에 따른 EDC의 저가수출, 90~91년에 나타난 염산가격 폭락 등의 손실 부문을 가성소다 가격에서 상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89년~90년 US스파트 가격이 FOB기준 톤당 각각 305달러, 335달러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해, 국내가격은 89년 4월기준 톤당 28만8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해 초에는 29만원선에 거래됐던 것이 6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26만원선에 거래되거나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생산제품 및 수입제품 사이에 시장확보를 위한 가격인하와 국제가격인하가 겹쳐 당분간 가성소다 내수가격은 내림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가성소다 생산기업들은 국

내 산업보호를 위해 조정관세나 덤핑제소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성소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데다 국제가격이 내림세를 지속, 이마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성소다는 전력이 제조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나 원료염이 제조원가의 12~13%를 차지, 가격 형성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93년 일본의 용도별 가성소다 수요는 전체 분야가 고르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분야 수요는 12만7300여톤으로 지난 88년 대비 9.7% 증가해 성장폭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제지 및 펄프 수요가 53만6000여톤으로 2.7%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가성소다 수급추이				(단위 : 톤, %, ▼는 감소)	
구 분	1988	1993	1995	증감률	
				93/88	95/93
식 료 품	144,606	160,800	171,410	2.15	3.25
섬 유 공 업 제 품	168,307	186,259	199,369	2.05	3.46
제 지 · 펄 프	469,058	535,510	572,234	2.69	3.37
염산등의소다공업제품	126,439	145,830	155,065	2.89	3.12
무 기 화 학 공 업 제 품	361,509	393,009	413,272	1.68	2.55
유 기 화 학 공 업 제 품	182,101	229,249	244,680	4.71	3.31
인 건 사 · 스 프	106,693	122,875	129,854	2.86	2.80
의 약 품	258,221	291,645	310,066	2.46	3.11
비철금속제련·정제	80,054	127,327	139,038	9.73	4.50
기 타	1,018,185	1,209,011	1,289,939	3.50	3.29
수 출	644,796	420,420	436,635	▼8.20	1.91
총 수 요	3,559,970	3,821,937	4,061,562	1.43	3.09
수 입	52,000	23,500	26,486	▼14.69	6.16
생 산	3,507,970	3,798,437	4,035,076	1.60	3.07

93년 1월 현재 미국 가성소다 공장 가동률은 96.0%에 육박하고 있으며 92년 이후 미국 시장은 약보합세를 유지, 전 지역의 과다물량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시장은 EC 내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물량에 따른 가격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저장시설을 소유·임대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레이더의 등장으로 시장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지난해 348만톤을 생산했고 일본은 383만6000톤으로 91년대비 2% 감소했으며, 일본 경기침체 영향으로 93년 생산량 역시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중동 및 남미는 이란·사우디아라비아가 가성소다 및 유도체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유럽 및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2년 국내 고체 가성소다 시장규모는 약 250억원 규모로 생산량은 98%용이 4만2200톤, 70%용이 2만2300톤 규모로 6만4500톤으로 집계됐다.

고체 가성소다는 현재 동해화학, 영우화학 등 중소 5개사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92년 기업별 생산실적은 영우화학이 98%용 1만여톤, 70%용 6000톤 등을 생산해 24.9%의 시장을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해화학은 98%용 및 70%용 고체 가성소다를 각각 1만4300톤, 4700톤을 생산해 29.5%를, 세방물산이 1만1600톤을 생산, 18.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체 가성소다는 50% 액체 가성소다를 원료로 농축해 Flake상태로 생산하는데 92년 Flake 수입량은 400톤으로 91년 1100톤 대비 63.6% 감소했다.